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주제꿀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주제꿀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주제꿀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주제꿀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변변하지 못한 물골이나 몸치장.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주제꿀	-	-	-
주제술	-	-	-
주제꿀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변변하지 못한 물골이나 몸치장.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5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주제골'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변변하지 못한 몰골이나 몸치장.

☞ 주제골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주제골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쥬제솔 사전 표기 요약	—	—	—	—	●→	—
주제솔 사전 표기 요약	—	—	—	—	—	●→
주제골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쥬제솔
19세기
- 주제솔
20세기
- 주제골
20세기현재

↳ 주제꿀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주제꿀’의 옛말인 ‘주제쌀’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주제쌀’은 변변하지 못한 물골이나 몸치장을 뜻하는 ‘주제’와 사람의 모양새나 행태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하는 ‘쌀’이 결합한 것이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ㅆ, ㅈ’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가 ‘ㅈ, ㅊ, ㅌ, ㅍ’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주제쌀’이 나타난다.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를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주제꿀’로 표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주제꿀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주제쌀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주제쌀

📖 출처 1869 남원고사 5:35L

용례 01

66 문헌 용례

어제 니셔방이 우리집으로 츠줏느디 그 주제솔이 순전 거어질너라

📖 현대어 풀이

어제 이서방이 우리집으로 찾아왔는데 그 주제꼴이 순전 거지였다.

📖 출처 1880 한불사전 588

용례 02

66 문헌 용례

주제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주제솔, 주제꼴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주제솔, 주제꼴

📖 출처 1925 조선일보 5월 18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주제솔을 이러케 하고 다니닛가 혹 엇던이는 선금 주기를 쓰리는 량반도 잇스나 실상은 그러
케 빈궁하지 안 사외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31 조선일보 5월14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업드러지며 잣바지며 겨우 십여 리를 오니 벌서 먼 산에 동이 터서 새벽 닭소리가 요란하고 하
로밤 고생에 주제솔이며 얼굴 모양이 아조 말 아니게 되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11월 28일 5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주제(名)不美風采 주제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11월 29일 4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너무 주제꼴이 사나와서 도둑 녀석으로 잘못 본 까닭인 듯합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주제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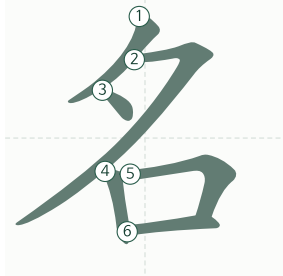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주제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1 / 1 · 5자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名 뜻·음 이름 명
총 6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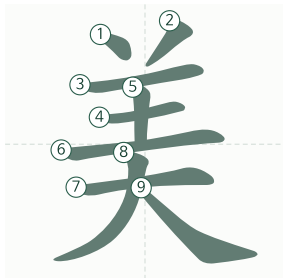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名/

不 뜻·음 아닐 불
총 4획 · 부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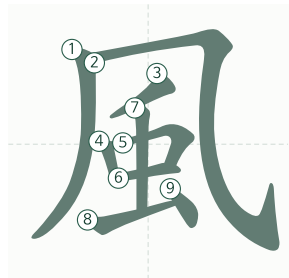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不/

美 뜻·음 아름다울 미
총 9획 · 부수 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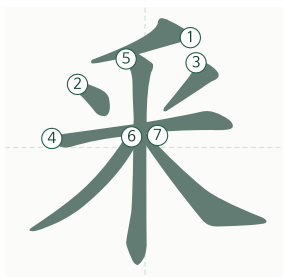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美/

風 뜻·음 바람 풍
총 9획 · 부수 風



hanja.wordrow.kr/한자/風/

采 뜻·음 나눌 변
총 7획 · 부수 采



hanja.wordrow.kr/한자/采/